

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 번호	2800
----------	------

김 경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강서1)

☐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입니다.

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☐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 세계보건기구(WHO)는 항생제 내성균,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로 인한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경고하고 있으며,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는 폐의약품을 ‘생활계 유해폐기물’로 지정하고 있으나, 해당 법은 주로 자치구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.

☐ 서울시는 2023년부터 폐의약품 수거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약과 수거 체계 개선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으나, 여전히 시민 인식과 정책 홍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,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폐의약품 처리와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7조제4항,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, 홍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